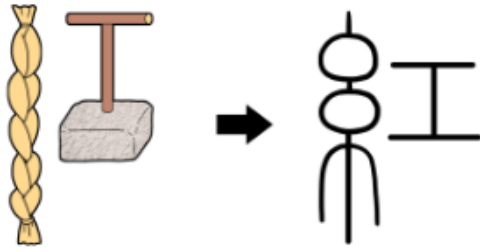


회의문자①



紅

붉을 홍

紅자는 '붉다'나 '번창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紅자는 糸(가는 실 사)자와 工(장인 공)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工자는 '장인'이나 '만들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紅자는 붉은색으로 염색한 실을 뜻하는 글자이다. 고대에는 실을 염색해 다양한 무늬와 색을 입힌 옷을 입었다. 紅자는 그중에서도 중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인 '붉은색'을 입힌 실을 뜻한다. 紅자에 쓰인 工자는 '공→홍'으로의 발음역할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공(加工)'이라는 의미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 왜냐하면, 실에 색을 입히기 위해서는 장인의 기술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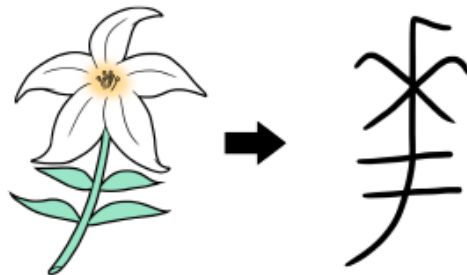
紅

소전

紅

해서

상형문자①



華

빛날 화

華자는 '빛나다'나 '화려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華자는 艹(풀 초)자와 華(드리울 수)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하지만 이는 지금의 글자 조합일 뿐이고 금문에 나온 華자를 보면 단순히 꽃잎을 활짝 펼친 華 '꽃'이 그려져 있었다. 소전에서는 여기에 艹자가 더해지면서 華자가 꽃과 관련된 글자라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었다. 꽃의 자태가 화려해서인지 지금의 華자는 '화려하다'라는 뜻으로만 쓰이고 있다. 참고로 61세를 화갑(華甲)이라고 하는 이유는 華자의 획이 6개의 十자와 1개의 一자가 있기 때문이다.

華

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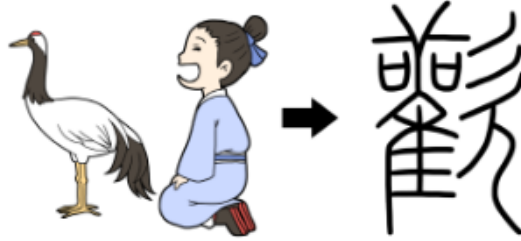
華

소전

華

해서

회의문자 ①



歡

기쁨 환

歡자는 '기쁘다'나 '좋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歡자는 雚(황새 관)자와 欠(하품 흠)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雚자는 큰 눈과 눈썹이 강조된 황새를 그린 것으로 '황새'라는 뜻을 갖고 있다. 여기에 입을 벌린 모습을 그린 欠자가 결합한 歡자는 눈웃음치며 즐거워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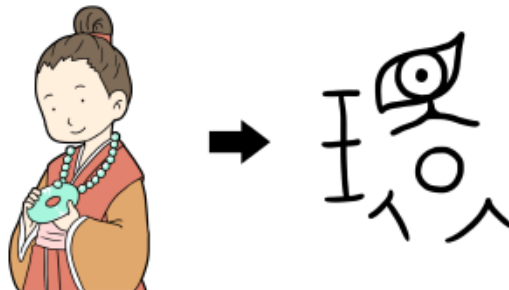
雚

소전

歡

해서

회의문자 ①



環

고리
환(·)

環자는 '고리'나 '둥근 옥', '두르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環자는 玉(구슬 옥)자와 環(놀라서 볼 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環자에는 여러 글자가 결합하여 있지만 둥근 옥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갑골문에서는 環자가 '둥근 옥'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그러나 금문에서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여기에 玉자가 더해지면서 지금의 環자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環자는 '둥근 옥'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지금은 주로 '둥글다'라는 뜻으로만 쓰인다.

環

금문

環

소전

環

해서

회의문자①



況

상황 황:

況자는 '상황'이나 '정황', '형편'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況자는 水(물 수)자와 兄(만 형)자가 결합한 모습이다.兄자는 무릎을 꿇고 축문을 읽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축문을 읽는 모습을 그린兄자에 水자가 더해진況자는 강가에 모여 기우제를 지내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況자가 '상황'이나 '정황'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것도 가뭄이 든 상황을 하늘에 알린다는 의미인 것이다.

況

소전

況

해서

회의문자①



灰

재 회

한자는 만든 이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는 문자이다. '재'를 뜻하는 灰자가 바로 그러하다.

灰자는 불(火)과 사람의 손(又)(𠂇)이 결합한 모습이다. 이것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불이라는 뜻이다. 손으로 직접 불을 만지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타고 남은 재는 손으로 만질 수 있으니 재미있는 상상력이 적용된 글자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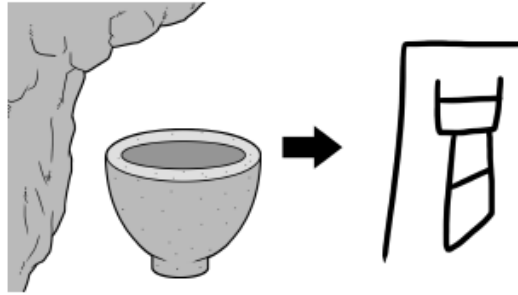
灰

소전

灰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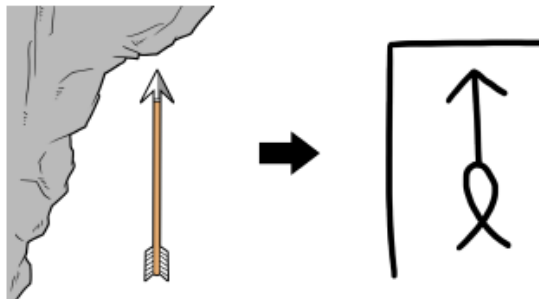
厚

두터울
후:

厚자는 '두텁다'나 '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厚자는 厂(기슭 엄)자와 日(가로 왈)자, 子(아들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日자와 子자는 단순한 모양자이기 때문에 뜻을 전달하진 않는다. 厚자의 갑골문을 보면 기슭 아래로 절구통 하나가 厚 놓여있었다. 이것은 돌을 깎아 만든 절구통이다. 돌을 깎아 만든 절구통이니 두께가 상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厚자는 절구통의 두께가 매우 두껍다는 의미에서 '두텁다'나 '후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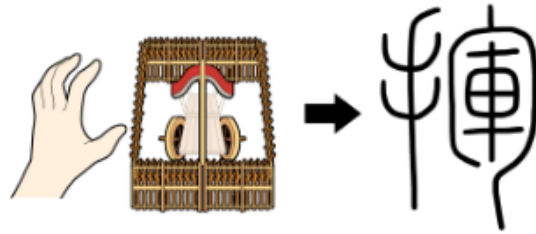
候

기후 후:

候자는 '기후'나 '상황'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候자는 제후를 뜻하는 侯(제후 후)자와 매우 비슷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왜냐하면, 候자와 侯자의 기원은 같기 때문이다. 둘 다 기슭과 화살을 함께 그린 것이었지만 후에 획이 생략된 候자는 '제후'라는 뜻으로 쓰이게 되었고, 候자는 '물어보다'나 '염탐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제후라는 직책은 변방을 다스리며 이민족의 정황을 황제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했었다. 그래서 候자는 '염탐하다'나 '상황', '조짐'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갑골문	금문	소전	해서

회의문자①



揮

휘두를
휘

揮자는 '휘두르다'나 '지휘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揮자는 手(손 수)자와 軍(군사 군)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軍자는 군 진영에 마차를 세워놓은 모습을 그린 것으로 '군사'나 '군대'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군대를 뜻하는 軍자에 手자를 결합한 揮자는 손을 흔들어 군대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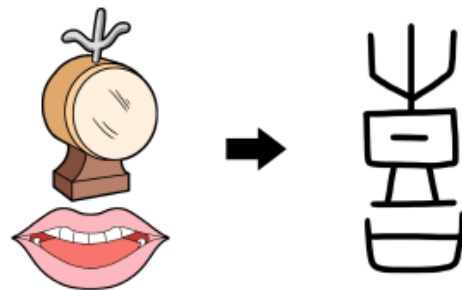
揮

소전

揮

해서

회의문자①



喜

기쁨 희

喜자는 '기쁘다'나 '즐겁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喜자는 喜(악기 이름 주)자와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喜자는 지지대 위에 올려놓은 북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북을 그린 喜자에 口자가 더해진 喜자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며 즐거워한다는 뜻이다. 지금도 중국에서는 경사가 있는 날에는 북을 치고 폭죽을 터트리며 축제를 즐기곤 한다. 喜자는 바로 그러한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기쁨을 표현하기에는 喜자 하나만으론 부족했는지 결혼식과 같은 큰 행사에서는 기쁨 두 배라는 뜻의 囍(쌍희 회)자가 더 자주 쓰인다.

喜

갑골문

喜

금문

喜

소전

喜

해서